



위로와 희망 주는 세계의 축제

코로나19가 여전히 극성을 부리고 있지만, 지구촌 각지의 전통적인 축제들은 그 명맥을 이어갔다. 이슬람 국가에선 이슬람 양대 명절 중 하나인 '이드 알 아드하(희생제)'가 시작되면서 가축시장이 열리고 곳곳에 잔치 분위기가 달아올랐다. 대추야자 산지인 사우디아라비아 우나이자에선 대추야자 축제도 열렸다. 스위스 알프스에선 알프호른 축제가, 러시아에선 수상 패들 축제가 열려 볼거리를 선사했다. 영국과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열린 뮤직페스티벌은 감염병 사태에 지친 사람들을 위로했다. 세계 곳곳의 축제 현장 사진을 모아봤다.

글 조보희 기자



이슬람 양대 명절 중 하나인 '이드 알 아드하'(희생제)를 앞두고 수단 수도 하르툼의 한 시장에서 가축 상인들이 손님 기다리고 있다. '이드 알 아드하'는 소, 낙타, 염소 등 다양한 동물을 제물로 바치는 이슬람 기념일이다

[AFP=연합뉴스]

사우디아라비아 우나이자에서 열린 대추야자 축제에서 한 농부가 말린 대추야자를 쏟아붓고 있다. 수확철을 맞아 열리는 대추야자 축제는 그해 가장 크고 좋은 대추야자를 뽑는데, 뽕힌 농장주에게 많은 상금을 준다.

[로이터=연합뉴스]



세네갈의 수도 다카르의 '이드 알 아드하' 기념식에 참석한 이슬람 신자들이 기도하고 있다.

[AFP=연합뉴스]



영국 사우스월드의 헨햄 파크에서 열린 래티튜드 페스티벌에서 관람객들이 텐트 사이에 앉아 있다. 래티튜드 페스티벌은 3일 동안 열리는 음악 축제로 모든 음악 장르를 다룬다. 음악 외에 연극, 코미디, 시, 정치, 춤, 문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연이 진행된다.
[AP=연합뉴스]



인도 하이데라바드에서 열린 보날루 축제에서 힌두 여신 복장을 한 예술가들이 거리를 행진하고 있다.보날루는 힌두교 파괴의 여신인 칼리에 바치는 힌두 민속 축제다.
[AFP=연합뉴스]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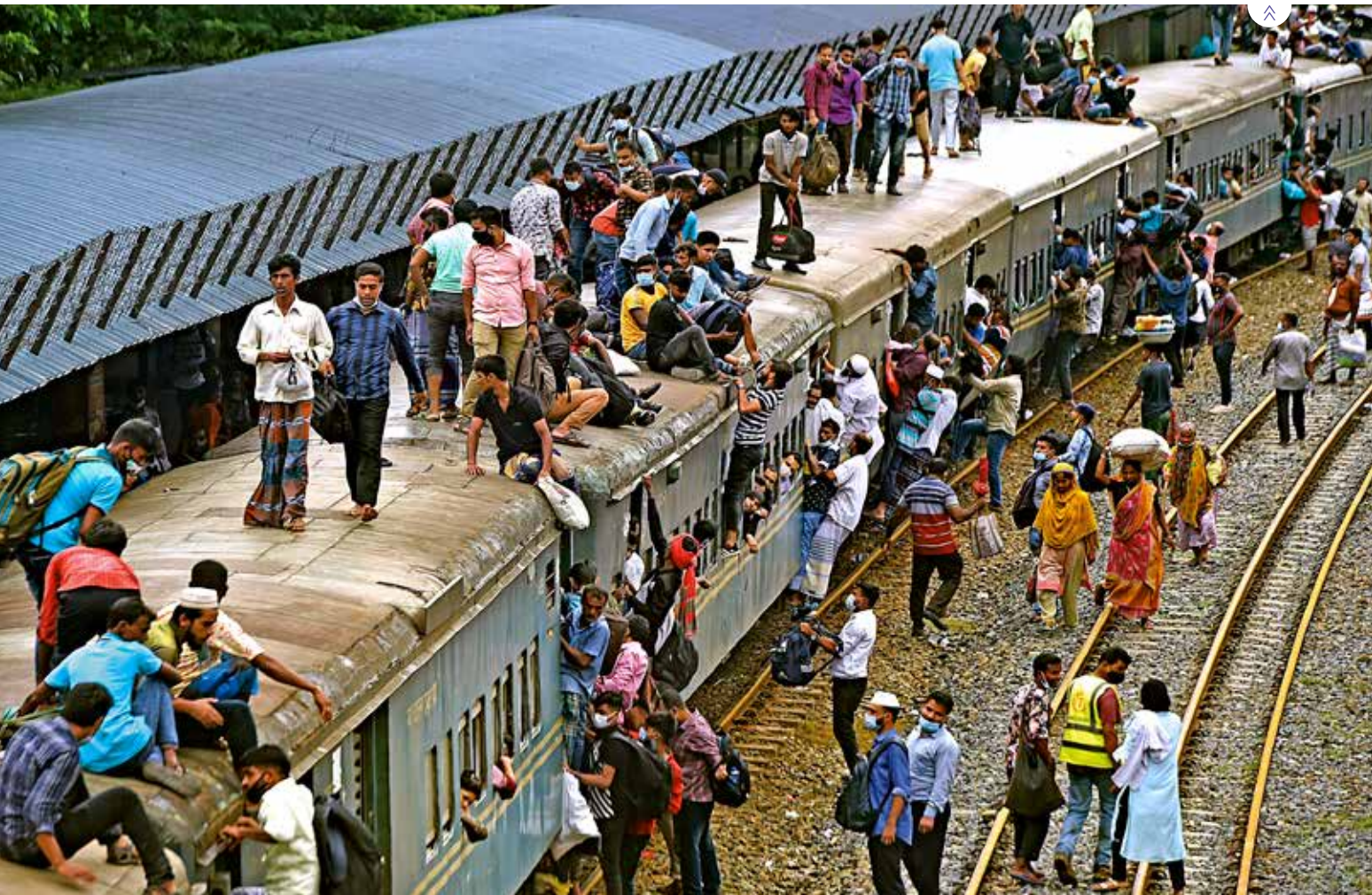
스위스 로카르노에서 열린 제74회 로카르노 국제 영화제에서 관객들이 피자 그란데 광장에서 상영되는 영화를 즐기고 있다.
[EPA=연합뉴스]

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스탠드업 패들 보딩 축제(standup paddle-boarding festival)에서 수천 명의 참가자가 운하를 따라 질주하고 있다.
[EPA=연합뉴스]



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미술리 축제(Misuli Festival)에서 한 참가자가 무거운 쇳덩이를 들어 올리고 있다. 미술리 축제는 이틀간 보디빌딩, 피트니스, 웰빙,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경연을 펼친다.
[AFP=연합뉴스]

이슬람 명절인 '이드 알 아드하' 휴일을 앞두고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의 한 기차역에서, 많은 귀성객이 만원 기차에 올라타고 있다.
[신화=연합뉴스]





프랑스 북동부 상블리뷔시에르의 한 공군기지에서 '몬디알 열기구 축제'가 열려 320여 개의 열기구가 하늘로 떠오르고 있다.
[AFP=연합뉴스]



사우디아라비아 남서부 타이프에서 열린 황태자 낙타 축제에서 낙타들이 경주하고 있다
[AFP=연합뉴스]



최초의 고산 가이드 협회인 '샤모니 가이드 회사' 창립 20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산악 가이드들이 프랑스 샤모니몽블랑에서 출발해 프랑스와 이탈리아 사이의 알프스산맥을 등반하고 있다.
[AFP=연합뉴스]

